2015년 10월 19일 오늘의 아침편지

'아침'을 경배하라
'朝'を敬拝しなさい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どれだけ長い間私が

'아침'의 의미를 오해했었는지 깨닫게 된다.
'朝'の意味を誤解していたのを気づくようになる

서울을 떠나 이곳에서의 아침은 눈과 코와 귀로
ソウルを離れ、ここでの朝は目と鼻と耳で

음미되고 스며드는 어떤 것이다. 다시 하루가
吟味してしみわたる、あるものだ。もう一度一日が

시작되는 것에 대해, 위대한 우주가 내게 또
始まることに対し、偉大な宇宙が私に、また

한번 손길을 내밀어준 것에 대해 저절로
もう一度手を差し伸べてくれることに対し、自ずから

마음으로부터 경배를 올리게 되는
心から、敬拝をするようになる

정결한 순간인 것이다.
純粋な瞬間であるのだ

- 오소희의《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겠지》중에서 -
- オ・ソヒの〈風が我々を連れてってくれるだろう〉より -

* 매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
* 毎日間違いなく訪ねてくる朝

그 아침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その朝を、私がどう迎えるのか考えるようになります

어제 목숨을 잃은 사람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昨日命を失った人には、二度と来ない

또 하루의 생명, 또 하나의 새로운 우주가
また一日の瞑想、また一つの新しい宇宙が

열리는 시간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開かれる時間です。純粋な心で

아침을 경배하며, 오늘 하루를
朝を敬拝して、今日一日を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幸せに始めます

(2011년 10월25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25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경배 (敬拜)
[명사]敬拝.
음미 (吟味)
[명사]吟味; 味解; 玩味; 咀嚼.
스며들다
[자동사](스미어 들다의 준말) 染みる; 染み入る; 染み込む; 染みわた...
저절로
[부사]自然(に·と); おのずと; おのずから; ひとりでに.[준말]절로.
정결하다 (精潔—)
[형용사]純粋で且つ清らかだ.
어김없이
[부사]間違いなく; たがわず.
정결하다 (精潔—)
[형용사]純粋で且つ清らかだ.

2015년 10월 20일 오늘의 아침편지

말솜씨
話術

'말을 잘 하는 것'과
'話をよくすること'と

'잘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よく話すこと'は全然違います

말을 잘 하는 것은 말솜씨가 좋은 것이고,
話をよくすることは、話術がよいことで

잘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솔직하게
よく話すことは、相手に素直に

내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私の心を伝えることです

말을 솔직하게 하려면
言葉を正直に話そうとすれば

내가 느끼는 감정에
私が感じる感情に

솔직해야 합니다.
素直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정도언의《프로이트의 의자》중에서 -
- チャン・ドンオンの〈フロイトの椅子〉より -

* 솜씨 중에 으뜸이 말솜씨입니다.
* 腕前の中の1番が話術です

사람 앞에 서는 사람에게는 특히 중요합니다.
人の前に立つ人には、特に重要です

그러나 말솜씨에만 매달리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しかし、話術にだけすがっては、長続きしません

감정 그대로, 생각 그대로, 살아온 그대로,
感情のままに、考えのままに、生きてきたままに

솔직하게 잘 말하는 솜씨여야 합니다.
正直にちゃんと話す腕前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そうすれば、私がまず心の門を

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開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次に

입을 열어야 합니다.
口を開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2011년 10월12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12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말솜씨
[명사]話術; 弁才; 口才.
솔직하다 (率直—)
[형용사]率直だ.
으뜸
[명사]
最上; 最; 最高; 一番; 第一; 頭(か...
根本; 基本; 根源; 宗.
매달리다
[자동사]
[‘매달다’の受け身] 吊られる; ぶら下げられる.
(늘어짐) ぶら下がる; 取り縋る; しがみつく.
(따라붙다) すがる; くっつく.

2015년 10월 21일 오늘의 아침편지

다시 출발한다
また出発する

새로운 출발이
新しい出発が

실패로 끝난다고 해서
失敗におわったとしても

인생이 영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人生が永遠に終わるのではない

다시 출발하면 또 새로운 인생이
また出発すれば、また新しい人生が

눈앞에 열립니다. 언제든지
目の前に開かれます。いつでも

숨 쉬고 있는 동안은 다시 출발할 수 있는데도
息をしている間は、また出発できるのに

이러한 삶의 특권을 포기하는
このような人生の特権を放棄する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人々がとても多いです

- 정도언의《프로이트의 의자》중에서 -
- チョン・ドオンの〈フロイトの椅子〉より -

* 포기하지 않으면
* あきらめなければ

언제나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いつももう一度出発できます

뜻이 있으면 오뚝이 처럼 다시 설 수 있습니다.
意思があれば、ダルマのようにもう一度立つことができます

다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もう一度起きて新しく出発するとき、一番重要な

하나가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１つがあります。方向です。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方向をちゃんとつか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속도는 그 다음입니다.
速度はその次です

(2011년 10월19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19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영영 (永永)
[부사]永永; 永久に; いつまでも; とわに. [준말]영(永).
오뚝이2
[명사]起き上がり小法師; だるま; 不倒翁(*한문투의 말씨...

2015년 10월 22일 오늘의 아침편지

선수와 코치
選手とコーチ

아무리 뛰어난
いくら秀でた

선수에게도 코치가 있습니다.
選手にもコーチがいます

아무리 위대한 사람에게도 멘토가 있습니다.
いくら偉大な人にもメンターがいます

그들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려주고,
彼らは、私が聞きたくない言葉を聞かせてくれて

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보여주고,
見たくない私の姿を見せてくれて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합니다.
私が、望んでないことをしてくれます

- 조정민의《사람이 선물이다》중에서 -
- チョ・ジョンミンの<人が贈り物だ>より -

* 선수와 코치는 한 몸입니다.
* 選手とコーチは一体です

둘이면서 하나인 공동 운명체입니다.
二つでひとつである共同運命体です

고락을 함께 하고, 희망을 함께 합니다.
苦楽を共にして、希望をともにします

어떤 코치,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
どんなコーチ、どんなメンターに会うかによって

자기 능력을 열 배, 백 배 높일 수 있습니다.
自分の能力を10倍、100倍高めることができます

두 사람이 합심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二人が、心を合わせればできないことはなく

합심하면 이루지 못해도
心を合わせれば、かなわなくても

아름답습니다.
美しいです

(2011년 10월31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31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들려주다
[타동사][←들리어 주다] 聞かせる; 聞かせてやる.

합심 (合心)
[명사]心を合わせること; 協心.

2015년 10월 23일 오늘의 아침편지

오래 슬퍼하지 말아요
長く悲しまないでください

수용소에 함께 있던
収容所にともにいた

소설가 트라이안은 모리츠에게 말한다.
小説家トライアンはモリスに言う

어떤 공포도, 슬픔도,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どんな恐怖も、悲しみも、終わりがあって、限界がある

따라서 오래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이런 비극은
よって、長く悲しむ必要がないと。このような悲劇は

삶의 테두리 밖의 것, 시간을 넘어선 것이라고.
人生の、枠の外のこと。時間を超えることだと

씻어버릴 수 없는 오물로 더럽혀진 간악과
洗うことができない汚物で汚された奸悪と

불의의 기나긴 시간이라고...
不義の長い時間だと...

- 송정림의《명작에게 길을 묻다》중에서 -
- ソン・ジョンリムの<名作に道を問う>より -

*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 すべてのことは過ぎ去ります

슬픔도 고통도 비극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悲しみも、苦痛も、悲劇も、いつか終わりになります

다만 '지나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시간을 넘어선
ただ'過ぎ去る'時間がちょっと必要で、その時間を越えた

'마음의 힘'이 필요할 뿐입니다. 큰 태풍이 불수록
'心の力'が必要なだけです。大きな台風が吹くほど

발바닥을 지면에 더 단단히 디뎌야 하듯, 공포와
足の裏を地面にさらに固く踏みしめなければならないように、恐怖と

슬픔이 클수록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悲しみが大きいほど、固く決心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오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長く、落ち込んだり悲しまないでください。

곧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必ず過ぎ去ります。過ぎ去れば

순간입니다.
瞬間です

(2011년 10월6일자 앙코르메일)
(2011年10月6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테두리
[명사]
縁; 枠; 輪. (=윤곽)
範囲; 限界; 枠. [준말]테.
넘어서다
[타동사]
越す.
通り越す.
(難関を)切り抜ける.
발바닥
[명사]足裏; 足の裏.
단단히
[부사]固[堅]く; しっかり(と); 丈夫に.

2015년 10월 24일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노미선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ノ・ミソ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얼굴', '얼골', '얼꼴'
'オルグル(顔)'、'オルゴル'、'オルコル'

'얼굴'의 옛말은 얼골입니다.
'オルグル(顔)'の昔の言葉は、オルゴルです

얼골은 얼꼴에서 왔습니다.
オルゴルはオルコルから来ました

'얼의 꼴'은 다시 말하면 '영혼의 모습'입니다.
'魂の姿'は、言い換えれば'霊魂の姿'です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위가
その人の魂の姿が、一番ちゃんと現れる部位が

바로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まさに顔だから、そう名付けられました。

- 신영복의《담론》중에서 -
- シン・ミョンボクの〈談論〉より -

* 우리는 살아가면서
* 我々は生きていきながら

수많은 얼굴들을 만납니다.
沢山の顔に会います

내가 지나온 45년의 세월속에 나를 스쳐간,
私が過ごした45年の年月の中に、私をすれちがって

그리고 내곁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얼굴들을
そして、私のそばに留まっている数多くの顔を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과연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一つ一つ思い浮かべてみます。果たして私は、彼らの顔に

'영혼의 모습'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魂の姿'をどれだけ覚えているかを考えてみます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들의 얼굴에서 베어나온
じっくり考えてみると、彼らの顔からしみ出た

'영혼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魂の姿で'覚えていました。

얼
[명사]精神; 魂; み霊.
꼴1

[명사]事物の状態·形; なりふり; ありさま; 恰好(...
담론 (談論)
[명사]談論.(=논담(論談))
스치다
[자동사][타동사]
(닿을 듯 지나감) すれすれに通り過ぎる; かすめる; かする; 触れ...
(생각·느낌 등이) (考え·感じなどが) かすめる; よぎる.
곰곰이
[부사]じっくり; つくづく(と); よくよく; つらつら.